"불법중흥·호법신장 역할 강화"

한나라당불자회 개편…사무국장 이태호씨

한나라당국회의원불자회(회장 김태호, 이하 한불회) 20일 상근직 사무국장에 이태호 씨를 선임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불자 의원들의 신심을 다지고,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한불회는 법회나 사찰순례 등의 일반적인 신행활동 외에도 불교계지도자 간담회, 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 불교계 현안문제 해결, 불교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무게를 두고 활동할 방침이다.

이태호 사무국장은 "한불회의 활동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7개월 남짓 각 종단 지도자 스님들을 친견해 왔다"며 "의원 모임으로서 정치적 색깔은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 보다는 호법(護法)하는 신행단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불회는 지난해 7월 김태호 현 회장 등 25명의 의원을 주축으로 창립됐지만, 신행단체로서의 활동은 부족했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현재 한불회는 김봉균, 김기배, 김영일, 김용갑, 김찬우 등 26명의 불자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불회 사무국 (02)784-5276 오종욱 기자

천불동 웹동호회 변신

buddhasite.net

30일 오픈…9월 기념법회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시숍 김용태, 이하 천불동)가 전자게시판이 아닌 웹(Web) 동호회로 새롭게 태어난다. 천불동은 인터넷 홈페이지 '웹 천불동(buddhasite.net)'을 30일 오픈한다.

3개월간의 준비 작업 끝에 선보이는 웹 천불동은 장경각, 도란도란, 불동회관, 정자나무 그늘, 여론조사 등 PC 통신상의 20여 메뉴를 그대로 수용, 회원들에게 친숙한 통신 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아이디(ID) 등록 없이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작해 비회원, 특히 비불자 네티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천불동 회원의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천불동에는 13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나, 글을 올리는 등 꾸준하게 활동하는 회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가상공간의 중심이 PC 통신에서 웹으로 옮겨진 탓이다.

"가상공간 신행단체 1호인 천불동의 웹 화는 늦은 감이 있다"는 천불동 대표시숍 김용태 씨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웹 커뮤니티로서 신행공동체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터넷 주 이용 계층인 20~30대 취향에 맞는 운영 방침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불동은 웹 천불동 오픈을 기념해 9월 15~16일 천안 성불사에서 '천불동 웹(Web)화 기념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오종욱 기자

경희대 한의대 선재회 벽지 무료진료

"아픈사람 돌보는 일도 수행"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는데 이렇게 가까운데서 아픈데 고칠 수 있으니 기분이 참 좋아요. 며칠 동안 계속 와서 치료 받을 거예요."

침을 맞으며 누워있던 박성락(73세) 할머니를 비롯, 차량으로 30여분을 더 나가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벽지인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주민들이 폐교에 차려진 한방무료진료소에서 정성스런 치료를 받고 있다.



◇선재회 의료봉사단이 폐교에 마련된 무료진료소에서 동산리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 불교학생회인 선재회(회장 손소정, 26·본과 1학년)가 23~26일 금오종합복지관(관장 법등)의 도움을 받아 무료진료봉사를 실시한 것. 봉사진은 김정훈 한의사를 비롯한 선재회 회원 20 여명. 폐교의 교실을 이용한 진료소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차트작성과 접수, 예진, 진맥, 침, 뜸, 부황, 약 처방에 이르기까지 환자들을 돌보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철저하고 일사불란했다. 70년대부터 이어져온 불교학생회인 선재회의 역사가 말해주듯 이같은 의료봉사활동은 선배 때부터 쌓여온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벽지까지 의료 활동을 펴겠다는 열린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모든 의료봉사활동이 그러하듯 방학이 시작된 7월초부터 진료장소 섭외, 선배 방문과 지원요청, 처방 관련 약재 준비 등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임 자체의 자금과 선배들의 지원이 이어졌다.

노인들 침 놓고 뜸 뜨고 낮엔 봉사 저녁엔 참선

졸업한 선배들이 수입의 일부분을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내는 것은 한의대의 오랜 관례. 결국 의료봉사활동은 선배와 후배의 마음이 한데 모여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회향인 셈.

선재회는 불교학생회의 활동 부진으로 몇 년간 쉬던 의료봉사를 1년 전부터 재개하면서 여름 수련회와 겸하고 있다. 지난해 경곡사에서 수련회를 겸한 봉사활동을 펼친 데 이어 올해도 도개면에서 멀지 않는 도리사에서 머물며 새벽 예불, 절, 참선, 염불 등 매일 주제를 정해 수련을 하고 낮에는 의료봉사활동을 폈다.

"불교 공부와 한의학 공부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손 회장은 "불교의 우주관, 생명관이 한의학과 통해 있어 불교를 통해 마음을 닦는 것이 한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커다란 중심축이 된다"고 말했다.

선재회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개인 수행과 진지한 의료봉사활동으로 정평나 있는 동아리. 한의에 대한 자부심 또한 남다르다. 손 회장이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것을 비롯 송경미(26.중앙대 약대 졸), 이민우(35. 서울대 공학대학 석사 졸), 최수진(28. 이대 화학과 졸) 등 선재회 회원 중 다수가 명문대를 마치고 한의학의 깊이와 생명관에 심취, 다시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을 정도.

선재회의 지도법사였던 도리사 재무 묘장 스님은 "선재회는 의학도로서의 기본마음과 자세가 확고한 불교모임"이라고 소개하며 "새벽 3시간의 수련으로 몸이 힘들텐데도 오히려 밝고 힘찬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법은 힘과 지혜를 줍니다"

경찰청 불교회 박재진 신임회장



경찰청불교회가 5년간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회장 자리에 최근 박재진 상훈계장(사진)을 추대했다. 새회장 등장과 함께 법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경찰청불교회.

"알고 실천하는 불교회가 되기 위해 기초부터 다져나갈 생각"이라는 박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조만간 교리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인원 파악한 후 초급반부터 단계별로 나아가야겠지요"라고 말했다.

불법을 익히지 않으면 기복적인 불교가 된다는 게 박회장의 지론이다.

종립학교인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된 박회장은 경찰대학 1기로서 경찰대학 내 불교학생회를 창립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경전읽기 등 독서와 법문을 통해 불법을 익힌다는 그는 먼저 불자들에게 <불교성전>이라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했다.

"불법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준다"는 박재진 회장은 "불법의 동반자가 많을수록 불법은 살아나기에 인연된 사람들에게 불법을 바로 전파해야 하며,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위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처님처럼 법을 설하는 사람은 왜 없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실천하는 불자가 돼야 함도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우리 모임에선

대전불교언론인회 8월 법회

대전불교언론인회는 31일 오후 7시 백제불교회관에서 회원 1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이후 두 번째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연화사 주지 종실 스님의 법문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석불硏 보도각백불 친견

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26일 서울시 일대 석불을 친견하는 '8월 석불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답사에 참여한 20여 회원들은 홍은동 보도각백불(서울유형문화재 제17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 전시되지 않은 석불 10여 점을 친견했다. 한편 연구회는 8일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에서 '삼국시대의 불상'을 주제로 동국대 문명대 교수초청 문화재 강좌도 열었다.

하불동 둥지마을 봉사

하이텔불교동호회 보살행은 26일 무의탁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대부도 '둥지마을 청소년의 집'을 방문, 훈훈한 정을 나눴다. 8월 정기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둥지청소년의 집을 찾은 보살행은 20여 명의 둥지청소년들을 위해 빨래와 주변청소를 했다.

세무사불자회 봉은사 법회

한국세무사불자회는 10일 오후 7시 봉은사 관음전에서 8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정기법회에 동참한 30여 회원은 '반야심경'을 주제로 한 관악산 불일암 주지 보명 스님의 법문을 듣고 참회정진하며 신심을 다졌다.

게시판

갈림

▲신회화상선어록 강독=선어록윤독회는 9월부터 매달 1·3주 토요일 동국대 교수회관 114호에서 정기윤독회를 개최한다. 한문에 기초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정기윤독회의 교재는 <신회화상선어록>. (02)3290-2492

▲관음사 무료진료=영남불교대학·관음사는 매달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층 법당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의료봉사는 대한허한방병원의 도움으로 진행된다. (053)474-8228

강좌

▲전통불교연구원 연구과정=한국전통불교연구원이 1기 연구과정을 개설했다. 9월 8일부터 4개월간 월~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는 연구과정에는 <조당집>, <불교와 노자> 등이 강의된다. (02)445-8484

▲직장인 불교교리강좌=동산반야회는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마련했다. 9월 5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되는 강좌는 불교의 정의, 삼과설, 연기설 등 12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02)732-1206

▲교리·수화반 강좌=부산불교교육대학은 18기 교리반과 9기 수화반 강좌를 마련했다. 하루 두 차례 강의되는 교리반은 9월 4일(주간) 및 6일(야간) 개강하며, 수화반은 9월 6일 시작한다. (051)867-9944

모집

▲밑반찬 배달 봉사=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원 및 차량 운행 자원봉사원을 모집한다. 밑반찬 배달은 매주 1회, 차량 운행은 1·3주 화요일 오후 3~5시에 실시된다.(02)2203-3677

▲노인대학 회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대학 회원을 모집한다. 9월 3일 개강하는 노인대학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개설과목은 노래교실, 댄스교실, 건강체조교실 등. (02)817-8052

▲빨래방 이용 업체=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홍길동 빨래방'을 이용할 업체를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경기지역 숙박업, 미용실, 목욕탕, 공장, 병원 등. (02)385-1351

▲하반기 노인 강좌=자양사회복지관은 하반기 어르신 강좌를 마련하고 회원을 모집한다. 개설 강좌는 민요반, 고전무용반, 컴퓨터교실, 영어교실, 한글교실 등. (02)458-1664

▲사회교육강좌 수강생=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무료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한다. 일어회화교실, 발지압교실, 사자고사성어교실 등이 마련됐다. 개강은 9월 3일. (02)421-6077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바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질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바타 02)782-0022 www.sayavata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